

쿠키뉴스 > 전국경남

## '김해시와 LG전자 인재대' 지역물류 인재 양성 협력한다

☑ / 기사승인 : 2024-07-03 15:41:42

김해시와 LG전자, 인재대가 지역 물류인재를 양성하고 스마트 공장 보급을 확산하고자 서로 손을 맞잡았다.

이들 기관은 3일 창원 LG스마트파크에서 김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물류 혁신을 위한 산관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홍태용 김해시장과 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 전민현 인재대 총장은 '김해의 산업과 도시, 대학 발전을 위해 물류인재 양성 현장캠퍼스 운영'과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 분야에 서로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이번 협약으로 김해시는 인재대학교 '스마트 물류학과'를 지원한다. LG전자와 협업을 통해 물류 혁신사례 벤치마킹과 LG전자 제품을 홍보하는데 협력한다. LG전자는 김해시와 인재대의 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장 활용과 교육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인재대는 물류 혁신 현장과 연계해 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더불어 LG스마트파크의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 제품 우수사례를 교육과정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LG스마트파크는 지난 2022년 국내 가전업계 중 처음으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등대공장'에 선정된 곳이다. '등대공장'은 밤하늘에 등대가 불을 비추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해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이끄는 공장을 의미한다.

LG스마트파크는 AI·디지털트윈 기술로 '지능형 공정 시스템'을 구축해 설계·개발·생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상의 5G 물류로봇과 고공 컨베이어, 지능형 무인창고 등 '입체물류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하고 각종 부품을 최적의 경로로 운반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시는 LG전자 생활가전의 생산기지인 LG스마트파크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인재들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홍태용 김해시장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성공 기원 릴레이 시작

홍태용 김해시장이 오는 10월 김해시 개최할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을 기원하는 챌린지를 시작했다.

챌린지는 양대 체전 성공적 개최 분위기를 띄우고자 도지사과 도내 시장·군수들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3일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기원 경남을 응원해'라는 문구의 피켓을 든 사진을 SNS에 게재해 챌린지 첫 주자로 나섰다.

더불어 양대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고 김해시 3대 메가이벤트를 홍보하는 챌린지 영상에도 참여했다.

챌린지 영상은 체전 마스코트(백둥이)와 김해시 캐릭터(토더기) 등과 함께 포켓몬 댄스를 패러디해 '쇼츠(짧은 동영상)'로 제작했다.

홍 시장은 "이번 릴레이 챌린지가 양대 체전 인지도 제고와 전 국민 참여 분위기 확산에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11일부터 17일까지 김해시와 경남 18개 시·군 75개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같은 달 25일부터 30일까지 12개 시·군 37개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